

韓國 大學生의 政治意識형성과 葛藤구조

玄 鍾 敏
(慶熙大 行政學科)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大學生의 政治意識構造를 究明하였는 바, 특히 변모하고 있는 한국의 産業社會化 과정에서 大學生들이 어떻게 政治意識을 形成해 나가며 이러한 政治意識의 形成過程 중 계층간·세대간·지역간 차이로 야기되는 갈등을 大學生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 大學生의 政治社會化 經驗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과정을 걷게 된 '60년대 이후 젊은이들의 現實參與는 모든 지식인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 大學生들이 사회 가치와 생활 습관을 어떻게 습득해 나가고 그것이 사회 규범에 어떻게 조화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이 계속 우리들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 大學生들의 政治社會化 經驗이 어떻게 사회 체제 안에서 사회 안정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어린 시절에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반면에 사회 가치는 어렸을 적부터 齟齬해 나가는 하지만 적당한 계기를 통하여 상황에 따라 급격히 변하기도 한다. 이것은 처음에 습득한 가치가 계속

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는 주장과 반대되는 견해이다.¹⁾ 이러한 개인의 자세가 변할 때, 그것이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요소 중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 그 가치관의 모습이 달리 변하기도 한다. 배어날 적부터 가지고 나온 生態的 또는 物理的 規範이 서서히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心理的·物理的 領域이 개발되는가 하는 것에도 각 개의 여론을 갖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생을 통한 몇 단계의 사회화 과정을 주기적으로 경험하면서 젊은이들의 가치관 형성은 어느 시점에서 더욱 영향을 많이 받고 또한 중요한 사회적 참여의 역할을 하는가를 보려는 見解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²⁾

政治體制論을 주창한 이스턴(David Easton)이 주장하기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부모의 영향력은 힘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판단된다고 보

고, 이러한 힘을 중심으로 한 인간 사회화 과정의 경험을 습득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 구분될 수 있는 정치사회화 경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처음 시기에 사람들은 정치화(politicization) 경험을 겪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보편적 정치 경험을 겪게 되면 개별적이고 특수한 기관이나 개체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것을 개인화 과정(personalization)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화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한 社會體制에 대한 견해를 갖게 되고 여기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을 습득하게 된다고 한다. 이 때에 사람들은 制度化的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제도화 과정(institutionalization)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겪는 경험의 단계는 제도와 규범의 중요성을 습득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성립되는데 이것을 이데올로기화(idealization)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과정의 사회화 경험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치 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한 계속적이고 豫測할 수 있는 자세를 形成해 나간다고 주장하고 있다.³⁾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선진 사회와 같은 수준에서 政治社會化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나는데 몇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도 있다.⁴⁾ 어떤 학자는 서구 제국의 젊은이들의 경우 기본적인 사회의 價値 習得 過程과 自律性 및 制度化的 과정을 중·고등학교 생활에서 겪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이들의 價値 規範에 대한 자율적 가치 습득과 자세의 형성이 대학교에 들어와서야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사회화 과정은 급격한 사회의 산업화 경험에서 보통 사회가 겪는 정상적인 사회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대학 시절의 새로운 가치 습득 과정에서 價値觀의 혼란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를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대학생들의 가치관의 갈등 구조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는 階層間·世代間·地域間·그룹간의 갈등에 대한 그룹별 갈등 구조를 政治社會化 과정 속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대학생의 정치 자

세와 관련된 설명을 할 때 세대간의 意識差가 기성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심화되어 있다고들 말한다. 따라서 기성 세대의 의식은 前代的 요소가 강하고 보수 성향이 있는 반면에 젊은 세대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進歩的이고 革新的인 要素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기성 세대는 현실지향적이거나 역사지향적인데 반하여 젊은 세대는 미래지향적이거나 이상지향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성 세대는 단순 사회나 단순 그룹에 대한 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젊은 세대는 복합주의적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요소가 강하게 일어 사회의 불의나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체제에 대한 반사적 반응이 기성 세대보다 비교적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⁵⁾

해방 이후 남북 분단의 상황하에서 일어난 사회 구조의 갈등 구조나 體制의 偏狹性 같은 것이 다른 사회보다 매우 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체제가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것보다는 偏狹的이고 便利主義的인 요소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회 체제 형성에서 보수성과 혁신성의 구별이 별로 되어 있지 않다. 특히 정치 과정에서 이러한 성향이 심하여 혁신과 보수가 실제적으로 정당마다 그 특성을 고려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정치 체제가 合法性을 구축해 나가는 성향이 우리나라의 체제에서는 매우 약하다.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富의 再分配가 골고루 이루어지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회 갈등 구조가 젊은이들에게는 너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성향이다. 여기에 전통적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을 일으키는 성향이 젊은 세대에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위주의적 체제와 진보적 체제의 뚜렷한 구별없는 갈등 구조는 젊은이들의 사회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쳐 실제적으로 정치에 대한 信賴感이 결여되어 정치의 無關心 내지는 無力症 같은 경향을 보이는 실정이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의 그룹간 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원화 정계 체편 조치로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울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사회 요소마다 公正性·衡平性 내지는 體制安定을 위한 보수와 혁신의 구도가 제대로 짜여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젊은 이들이 새로운 가치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원만하지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체계적 갈등 구조가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어떻게 다른가를 고찰하기로 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일반인과 대학생을 구분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치적 가치관을 묻는 설문과 여기에 따른 응답자의 사회 배경과 사회화 경험을 묻는 설문 항목을 구성하여 얻은 전국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 자료를 수집하는 데 경희대학교 국민 여론 조사팀이 참여를 하였고, 이 설문을 1987년도 대통령 선거 前과 後로 나누어서 같은 사람에게 질문을 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젊은 대학생들의 사회적 갈등 구조가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기성 세대와 어떠한 견해차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러한 견해가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구조의 범위와 그 內容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알아 보았다.

이번 연구에 응한 대학생들의 社會的 背景을 보면 1,2학년이 각각 27,29%이고, 3학년이 31%, 기타가 13%로 주로 1,2,3학년이 중심이 되어 설문에 응하였다. 또한 專攻別로 보면 社會科學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인문과학, 자연과학, 응용과학이 각각 15,10,10%의 순으로 설문에 응하였다. 家族收入을 보면 30만원에서 100만원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100만원 이상이 되는 집안의 학생들은 10% 미만이었다. 또한 出生地別로 보면 京畿地域이 40% 이상이었으며,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은 각각 15%의 학생들이 응답하였으며, 충청도와 강원도는 25%를 점하였다. 이번 설문의 응답자로 선정된 대학 1,2,3학년생들은 대학사회에서 경험하는 초기 사회화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피험자라고 판단되었다. 전공은 사회과학이고, 가족 수입의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중류에 속하는 학생들이 주로 설문에 응하였다. 또한 출생지별로는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各道 出身이 골고루 선정되었으나, 특히 서울·경기 지역이 비교적 많아 서울

지역 대학생들의 의식 구조를 비교적 많이 반영하고 있다.

2. 大學生의 政治經驗습득과 葛藤구조

우리나라의 사회가 급격히 변하면서 초래되는 각 분야별 갈등 상황은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훨씬 사회적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政府의 正統性 논란은 1960년 이래 대학생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선거를 실시했어도 실제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여러 행정 조치 내지는 제도 운영의 불합화음에 의해서 대표자를 뽑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크게 신장되지 못하였다.

이와 유사한 상황을 미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人權運動이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크게 일어났을 때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떨어졌었다. 특히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좋은 예로는 월남전에 대한 정부의 확전 정책이었고 또한 인종 차별에 대한 정책과 유아기에 있는 흑인과 백인에 대한 교육구 학교 배정의 강제 집행에 대한 교육 정책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 변혁에 대한 정책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었으며, 사회 변혁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미국 젊은이들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것은 예외가 아니었다. 정부의 신뢰에 대한 우선 순위를 기성 세대와 대학생들에게 물어 보았더니 기성 세대는 경제 성장이나 정치 안정과 민주화 조치가 중요한 것으로 정부의 신뢰를 신장시키는 것이라고 한 반면, 대학생들은 사회 변혁의 차원에서 정치 민주화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생들은 政治安定이 經濟安定에 앞서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성 세대와 대학생의 견해 차이는 사회 갈등 구조를 낳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정부 정책의 支持度에 대한 일반인과 대학생의 차이를 보면 학생들은 민주화에 대한 여러 정책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 주장했고, 富의 公正한

再分配 내지는 社會正義 실현을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社會正義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과 민주화에 관련된 정책을 支持하는 학생 수는 80%를 훨씬 상회하였다. 반면에 일반인들은 사회 정책과 민주화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보였으나 학생보다는 훨씬 못미쳤다. 반면에 일반인들은 경제 정책이 중요한 것임을 지적했고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도의 일반인과 대학생의 차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 갈등의 구조적 원인이 되기도 했다.

다른 젊은 세대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부 정책의 지지도의 변화가 결국 학생들의 현실 참여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주원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학생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 내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현실 참여는 기존 기성 세대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현실 참여에 대한 태도 변화는 세대간의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사회의 變革期에 있어서의 가장 감수성이 높은 젊은 세대의 현실에 대한 반응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얼마간 계속되고 어떠한 구조적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社會學者 만하임의 경우, 이러한 젊은이들의 구체적 문제는 역사적인 것이냐 아니면 생태학적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여기에서 만하임은 이러한 세대간의 차이에서 오는 현실 불만 내지는 현실 참여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歷史的인 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간의 차이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과 일반인에게 정부 시책에 대해 示威를 했었는가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일반인보다는 대학생이 훨씬 많이 현실 참여를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이 정부 시책에 항의나 시위를 한 경우가 14%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학생들은 70%에 가까운 숫자가 정부 시책에 대한 항의나 시위를 했다고 답변을 했다. 반면에 항의나 시위의 效率性을 물어 보았더니 대학생의 경우 항의나 시위가 거의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하는 학생이 거의 80%에 가까운

반면 기성 세대인 경우에는 같은 맥락에서 70% 미만이 같은 의견을 가졌다. 여기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대학생들이 현실 참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꼭 성공적이어서 현실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正義 실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현실 참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성 세대는 그 항의나 시위가 좀 더 성공적인 측면에서 實效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33%나 되었다.

다음으로 抗議나 示威는 무엇에 관하였는가를 물어 보았더니 대학생의 경우 거의 80%가 政治問題였다고 대답한 반면에 기성인들은 정치 문제가 50%정도 차지했다. 기성 세대인 경우에는 勞働問題와 市民權利를 찾는 문제에 항의나 시위의 초점을 맞춘 반면에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정치 문제에 훨씬 많은 숫자가 시위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것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대학생들의 현실 참여는 그것이 어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구조적 갈등보다는 현실적이고 잠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기성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 갈등 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그것이 사회적 구조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대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았더니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자라면서 갖게 되는 가치와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개인 가치 및 사회 규범을 습득하는 정치 경험이였다. 특히 가족과 친구, 학교와 매스컴의 영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와 가족 중 어느 것이 더 정치적 영향으로 중요하냐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였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영향보다는 친구나 학교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친구 중에서도 학교에서 사귀고 있는 친구들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친구의 영향이 크어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는 연구 방법의 차이에서 초래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친구와 가족을 동시에 정치 영향의 요소로 고찰하여 보면 정치화의 긴 안목에서 친구보다는 가족의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친구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측정한 결과 기성 세대보다는 젊

은 세대가 친구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家族의 영향에 있어서도 역시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족은 친구의 영향보다 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성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가 가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젊은 세대는 정치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친구와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친구와 가족의 영향이 기성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현상은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갈등 구조를 해소해 나가는 데 가족 제도의 올바른 정립과 학교에서의 친구의 성분에 따라 정상적인 政治社會化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와 신문, 잡지가 범람하는 최근의 우리나라 사회 실태에서 보던 실제적으로 TV의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TV의 영향은 기성 세대에게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문·잡지의 영향은 역시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신문과 잡지를 통해 젊은이들은 현실 불만에 대한 가치와 규범을 습득하고 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반면에 기성 세대는 정치 자세를 정립해 나가는 데 대중매체 중에서도 TV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젊은 대학생들의 올바른 정치적 견해와 자세를 세워 주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친구와 신문·잡지의 올바른 제도가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3. 大學生의 體制支持度

민주 체제하에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그러한 관심이 어떻게 정부에 반영이 되는가에 대한 신뢰는 사회 및 정치 체제의 건전함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응을 보이는데 대한 신뢰성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정치에 대한 關心과 정부의 反應度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보수 및 진보적 성향에 대한 정치 참여의 판단 기준은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

다. 또한 국민들이 스스로 정부를 합법적 방법에 의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정치 참여의 가능성은 증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생과 기성 세대의 견대 차이를 알아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정치 활동의 관심도는 학생과 기성 세대 모두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학생의 정치 활동에 대한 관심도는 일반 기성 세대보다 1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 의견이 잘 반영되는가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해 본 결과, 과반수 이상이 별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여 실제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체제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경우 30% 이상이 현 체제 하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게 국민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대학생에게 단연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정부의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일반인과 대학생의 견해를 보면 양측 모두가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정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80%에 가까웠었다.

保守·進歩主義에 대한 견해를 기성 세대와 대학생에게 질문한 결과 스스로를 보수주의에 가깝다고 응답한 학생은 거의 20%에 달했고 반면에 보수와 진보의 중간이라고 한 학생이 40%나 있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급격한 사회의 변화를 바라고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비교적 다른 나라의 같은 연령의 학생들보다 훨씬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보수적인 견해는 일반인의 경우 더욱 그것이 두드러져서 실제적으로 진보주의에 가까운 일반인은 30%이고 나머지 70%는 모두 보수주의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중간에 스스로가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정치 의식 구조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정치의 변혁을 바라는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역시 政治社會化 과정에서 학생들은 가족과 사회 중심의 전통적인 견해에 머물러 있

기는 하지만, 사회의 변혁에 대응하는 자세는 띄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던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가 소속 사회의 여타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매우 큰 관심을 끌게 된다. 가장 신뢰를 받는 기관은 학생들이 選好하고 있는 종교 단체와 재야 단체였다. 그리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지지도는 1% 미만으로 나타났고, 법원이나 정부에 대한 견해도 모두 5% 미만에 머물렀다. 이러한 견해는 결국 학생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전체 10% 미만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기성 세대의 경우도 비슷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는 言論機關과 宗教團體를 들고 있다. 그 다음으로 教育機關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 국회, 법원에 대하여는 5% 미만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 지지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한 신뢰감은 결국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의 요소로 작용되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구조 불안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다.

정당은 민주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 국민의 의견을 정부에 반영하는 데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에 대한 지지는 결국 그 사회의 민주화를 가능하는 척도가 된다. 과거 4당 구조에 있어서 민정당, 민주당, 평민당, 신민주공화당에 대한 일반인과 대학생의 관심도를 분석하였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민주당, 평민당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견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거의 30% 이상이 민주당과 평민당에 대해서 호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여당인 민정당에 대한 호의적인 견해는 2% 미만으로 머물러 있었다. 물론 이 선거 자료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얻어진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여당에 거는 기대보다는 야당에 거는 기대가 훨씬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기성 세대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러나 민정당에 대한 느낌에 중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인에 있어서는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서 실제적으로 비록 여당에 대한 호의적 감정은 없다 하더라도 언제나 호의적인 견해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50% 이상이 되었다. 이러한 가능성은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대두되어 안보 의식을 자극하였을 때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으로 바뀌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大統領 선거 기간 동안의 候補者에 대한 支持度를 일반인과 대학생을 구별하여 알아 보고 노태우 후보와 김영삼, 김대중, 김중필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느낌을 알아 보았다. 대학생들은 김영삼과 김대중에 대한 호의적 견해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반 기성 세대는 김영삼·김대중 후보를 각각 35%, 29%로 호의적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노태우 여당 후보에 있어서는 대학생인 경우 4%에 머물렀고 일반인의 경우 14%에 머물렀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호의적인 견해는 민주당이 제일 우세했다. 그러나 각당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중립적 견해가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거 당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 변화와 사회 분위기가 중립적 견해를 가지고 있던 과반수의 국민들에게 체제 지지에 대한 태도를 급격히 바꾸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선거 당일에 34%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政黨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왜냐하면 사회가 변혁의 시대에 이르고 사회 변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크게 부상되어 있는 경우에 정당의 보수성과 진보성에 대한 견해는 체제 유지와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 어느 정당이 더 보수적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학생과 일반인 공히 민정당이 더 보수적이라고 한 반면에 일반인의 경우에 민주당도 역시 민정당 못지않게 보수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민주당은 약간의 보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주공화당의 경우에도 민정당과 유사한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평민당의 경우는 대학생인 경우 10% 미만이 보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평민당의 진보성을 크게 믿고 있었다. 반면에 일반인의 경우

14%만이 평민당이 보수당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다시 어느 정당이 더 進步의이나에 대해서 물어 보았더니 平民黨이 단연코 대학생의 경우 60%나 진보적이라고 답변을 했고, 일반인의 경우 45%였다. 반면에 民主黨의 경우는 일반인이 32%, 대학생이 26%나 진보적이라고 하여 보수와 진보의 중간에 있는 정당으로 보는 견해가 두드러졌다. 반면에 民正黨의 경우 대학생들은 5% 정도에서 진보성이 있다고 답했고 일반인의 경우 15%가 진보적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여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의 정당 구조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볼 때 여당이 더 보수적이고 야당이 더 진보적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진보성과 보수성이 실제적으로 정치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국민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당 운영의 미숙과 정당이 제대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수성과 진보성이 우리 국민 의식 구조 속에 있음은 실제적으로 서구적 민주주의의 체계 하에서 정당의 보수·진보 구조의 정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의 동서 갈등이 화해 시대로 접어들고 동구권이 개혁의 바람에 휩싸여 있는 요즈음에 우리의 국방력 축소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남과 북의 대립을 긴장 완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國防力 縮小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기성 세대와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알아 보았더니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만 한다는 견해가 거의 과반수였다. 점차 축소를 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도 5% 정도에 머물렀고 일반인의 경우 10% 미만이었다. 오히려 점차 증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학생과 일반인 거의 40%에 가까운 견해로 국방력 증강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국방력에 대한 지지도를 다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駐韓美軍 撤收에 대한 것을 물어 보았다.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는 견해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대학생은 겨우 33%이고 반대의 입장을 취한 학생이 77%였다. 반면에 일반인의 경우에 90% 가깝게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앞에서 언급한 우리의 국방력을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점차 증강해야 된다는 데 거의 90% 이상이 찬성하는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국방력에 대한 지지도와 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사회에 나타난 주장과는 다르게 의식 구조에서 국방력의 증강과 미군의 계속 주둔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急進主義 학생에 대한 견해를 알아 보았다. 그동안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여기에 개혁의 주세력으로 부상한 것이 대학생의 사회 참여였다. 이러한 대학생의 사회 참여와 사회 개혁 주도 세력으로 부상한 급진주의 학생들에 대한 느낌을 일반인과 대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호의적인 견해는 대학생들의 경우 겨우 15%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일반인은 겨우 6%만이 호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비호의적인 견해가 상당히 높아 거의 과반수의 일반인은 급진주의 학생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견해를 보였고 대학생들은 23%나 이 경우에 머물렀다. 이렇게 볼 때 실제적으로 일반인과 대학생 공히 급진주의 학생들에 대한 느낌은 호의적인 것보다는 비호의적이거나 중립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어 급진주의 학생들에 대한 지지도는 생각보다 약화되어 있었다.

사회가 산업화가 되면 자연히 그 사회에 처해 있는 여러 그룹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갈등, 계층 갈등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많은 사회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특히 地域葛藤에서 湖南人·嶺南人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이번 설문에서 알아 보았다. 일반인의 영남인에 대한 느낌은 호의적인 견해가 23%이었고, 호남인에 대한 호의적인 견해는 20%였다. 반면에 대학생의 경우는 영남인에 대한 호의적 견해가 27%였고, 호남인에 대한 호의적 견해는 24%에 머물렀다. 또한 영남인에 대한 비호의적인 견해는 일반인의 경우 14%, 대학생의 경우 9%로 나타났다. 반면에 호남인의 경우 비호의적인 견해는 일반인의 경우 32%, 대학생의 경우

19%로 나타났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영남인과 호남인에 대한 호의적·비호의적 견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던 이러한 地域區民에 대한 국민들의 느낌을 農村과 都市 사람들 간에 구별하여 알아 보았더니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도시 사람들에 대한 느낌에서 일반인은 16%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농촌 사람에 대해서는 62%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대학생의 경우, 도시 사람들에 대한 호의적인 견해는 16%였고 농촌 사람들에 대한 것은 55%였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도시 사람들보다 농촌 사람들에 대해 훨씬 호의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이 차별과 부유층에 대한 느낌을 물었을 때에는 겨우 3% 정도로 일반인과 대학생 공히 호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비호의적인 견해는 과반수가 훨씬 넘었다. 이러한 견해에서 보던 실제적으로 지역간 갈등보다는 계층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政府當局에 대한 호의적인 느낌을 알아 보았더니, 일반인의 경우 6%였고 대학생의 경우 2%가 호의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비호의적인 견해에서는 대학생의 경우 70% 이상이었고 일반인의 경우 38%가 비호의적이었다. 이렇게 볼 때 정부 당국에 대한 일반인과 대학생의 지지도는 크게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세대간의 갈등은 정부에 대한 지지도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在野·人權團體에 대한 느낌을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물어 보았다. 재야·인권 단체에 대한 일반인의 호의적인 견해는 23%에 머무르는 반면에 학생들의 경우 43%나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비호의적인 차원에서 마찬가지여서 재야·인권 단체의 일반인의 비호의적인 견해는 18%였고, 대학생의 경우 9%였다. 이렇게 볼 때 대학생과 기성 세대간의 정부 체제와 재야 단체에 대한 지지도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정부 당국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신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기성 세대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두 세대간

의 정권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은 결국 우리 체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현실 참여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견해가 바로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개방되면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地方自治制를 실시함에 있어서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논의가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에 대한 남자들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 보았다. 여성이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일반인과 대학생 공히 15%에 머물렀다. 따라서 여성이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는 데 찬성하는 국민은 80% 이상이었다. 이러한 여성의 현실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남녀 모두 직업이나 정치에서도 동등하게 참가해야 한다는 데에서도 같은 견해를 보였다. 일반인과 대학생들이 80% 이상 이러한 견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정부는 여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데도 역시 80% 이상이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국민들은 세대차와 관계없이 여성의 현실 참여를 찬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현실 참여에 대해 세대간의 차이 없이 높은 지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이 역할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찬성을 하고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성은 가정을 지키고 남성은 사회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것은 일반인과 대학생 공히 40%나 긍정적이었다. 이것은 곧 여성은 가정을 지키고, 남성은 밖에서 일해야 된다는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傳統的 역할을 다시 재확인하는 결과였다.

최근 세계적인 추세인 여성의 현실 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서는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개개인의 남녀의 이해관계에서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여성의 현실 참여에서는 찬성을 보이나, 그것이 국민 개개인의 이해 관계에 머무를 때에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그대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對女性

觀이 크게 진보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최근에 지방자치제법 실시에 있어서 할당제를 통한 여성의 현실 참여를 보장해 주는 각당의 정책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경우를 보고도 알 수가 있다. 즉 각 정당은 여성의 현실 참여에 대한 당론을 만들어 놓고 있으나,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할당제를 부여하여 현실 참여를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에는 매우 인색하다.

4. 맺는 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정치 의식 구조를 알아 보았다. 특히 변모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사회와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어떻게 정치 의식을 형성해 나가며 이러한 정치 의식의 형성 과정에서 각 그룹간의 갈등으로 초래되는 계층간·세대간·지역간·그룹간 갈등을 소화하고 이에 잘 조화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알아 보았다. 또한 한국 대학생의 정치 의식 구조의 갈등 구조를 알아 보기 위해 기성 세대와의 의식 구조를 집중적으로 비교하였다.

한국 대학생의 경우 독자적인 사회 규범과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다른 선진 사회에서처럼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기보다는 스스로 독립의 단계에 들어서서 대학생 시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학교 친구와의 관계이고 그 다음으로 가족의 영향이 컸다. 그리고 매스컴의 영향이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문과 잡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대학생의 정치 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갈등 구조는 실제적으로 지역간 갈등보다는 계층간 갈등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과 기성 세대와의 체제 지지에 대한 견해에서는 기성 세대가 정부의 기존의 조직에 대해 대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대학생의 경우 기존 체제에 대한 불신이 다른 나라의 같은 세대의 젊은이보다도 높았고,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나타난 불안 요인이 결국 한국 대학생의 현실 참여의 현상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체제에 대한 不信任感으로 인한 현실 참여 행위는 실제적으로 오래 남아 기성 세대로 그 과격성이 이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한국 대학생의 현실 참여는 社會正義 실현과 불안 요인들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잠정적이고 충격적인 反射行爲였다. 그것은 대학생 시절에 급격히 발달하다가 대학을 졸업할 때 기존 체제에 대한 긍정적 순응의 자세로 대부분 전환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이데올로기 구조를 보더라도 進歩的인 것보다는 保守的이었다. 이러한 보수적 견해는 고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오는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체제 維持와 安定을 이루는 基本이 된 듯하다. 또한 각 정당과 정당에서 내놓은 대통령 후보의 지지도를 보더라도 호의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적은 지지를 보이지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대학생들의 숫자가 과반수를 넘고 있어서 정책과 이슈에 따라 의사 결정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대학생 그룹들이 일반적으로 보수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체제 지지의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현실 참여에서의 과격성은 일시적인 政治社會化의 한 과정으로 판단된다. *

〈參考文獻〉

- 1) Easton & Jack Dennis, "The Development of Basic Attitudes and Values Towards Government and Citizenship During the Elementary School Years", Final Report, Office of Education, 1968.
- 2) G. Almond and S. Verba,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5), pp.371~379.
- 3) David Easton,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John Wily & Sons, Inc, 1965), pp.29~32.
- 4) 박용현 외, "현대 한국인의 정치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사상논총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5) 현종민, "한국대학생의 정치의식과 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집, 경희대학교, 1984.